

전주시 다주택 공무원 승진 못한다

인사관리 규정 이달 중 개정 부동산 투기 공무원도 불이익 개발지역 구입펜 신고 의무화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전주시가 다주택 보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청렴·도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다. 전주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전주시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공직자의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 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수행태도 감점 등이 담겼다. 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전주시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한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 이같이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월과 3월 인사에서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명문화해서 이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읍 용산호에 설치되는 '미르샘' 디자인. (정읍시 제공)

“정읍 용산호 분수 ‘미르샘’으로 불러주세요”

시민 제안 공모 심사 명칭 결정

정읍 내장산리조트 인근 용산호에 설치 예정인 분수의 명칭이 '미르샘분수'로 결정됐다. 정읍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해 접수된 40개의 제안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결과 '미르샘분수'가 용산호 설치 예정 분수의 명칭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용'을 뜻하는 우리말 '미르'가 용산호라는 지명을 가장 잘 나타내는 데다가 레이저 시스템을 통해 스크린에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할 조형물과도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이 '미르샘분수'로 결정된 이유다. '미르샘분수' 설치는 민선 7기 정읍시가 새로운

관광콘텐츠 확보와 체류형 관광지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용산호 일대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다. 올해 단풍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며 용산호에 3가지 조형물과 분수, 수상 데크 등이 함께 조성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용산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1년 내내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미르샘분수가 완공되면 민간투자 마중물로서 역할은 물론 정읍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국도 77호선 고창~부안 잇는 노을대교 조기 착공해달라”

군민추진단 범군민 서명운동 돌입

국도 77호선 고창~부안을 잇는 노을대교(가칭)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이 본격화했다. '고창·부안 노을대교 군민추진단'은 지난 31일 고창과 부안 종합버스터미널 등에서 노을대교 조기착공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군민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타 지역에는 해저터널,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동안 전북 서남권은 철저히 외면 당했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며 노을대교의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군민추진단은 또 "노을대교는 대한민국 물류 대동맥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꼭 완성돼야 한다"며 "2022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등 전북 서남권의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을대교 조기착공으로 환황해 경제 중심지 도약'을 촉구하며 최소 3만인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이 본격화했다.

군민추진단은 이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온라인을 병행해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획재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의 염원이 담긴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산업단지·고속도로 인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익산시는 오는 5월까지 20억원을 들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호남고속도로 인근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각각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숲은 각각 2ha 규모며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큰 2만8천여그루의 소나무, 느티나무 등을 심어 만든다. 앞서 익산시는 2019년에는 제3일반산업단지 인

근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도심이나 주택가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숲을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국내 유일 '고창 농촌영화제' 10월29일 개막

사흘간 다채로운 프로그램

국내 유일의 '고창 농촌영화제'가 10월29일부터 사흘간 개최된다.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의 개막 일정과 장소, 주요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창농촌영화제는 국내 최초 농업·농촌을 주제로 개최한 영화제다. 2018년 제1회 고창농촌영화제를 시작으로 농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 상영과 체험 행사, 인문학 강좌 등이 진행됐다.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를 10월29일 개막하기로 했다. (고창군 제공)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 등 지역주민과 관객객들의 안전을 위해 차안에서 영화를 보는 드라이브 영화제를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고창농촌영화제는 10월29일부터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안에서 영화를 보는 드라이브 영화, 장·단편 영화 제작 공모 및 시상작 상영, 영화감독과 함께하는 무비토크, 영화 OST 라이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진기영(NH농협 고창군지부장)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안전하게 진행됐다"며 "제4회 영화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안전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짓는다

전북 최초...7개 단체 사무실 한 곳에

남원시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인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종합센터 <투시도>'를 건립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지역 최초로 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 사무실이 한 곳에 있는 종합회관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다. 총 사업비 18억4700만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옛 향교동행정복지센터에 지상 3층, 연면적 1090㎡ 규모로 리모델링 및 증축한다. 완공된 회관에는 단체별 사무실과 교육장, 다목적 강당 등이 들어선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이 장애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잡아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이환주 남원시장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이 장애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잡아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